

“UAE 원유·비축유 방출... 4월 국내 원유수급 문제 없다”

산업부 중동상황 대응본부
이달 말부터 순차적 도입 예정
카타르산 가스 비중 20% 미만
당장 가스공급 차질 크지 않을 것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유례없는 상승 속도를 경고하면서도 4월 국내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산업통상부 ‘중동상황 대응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113.50달러, WTI는 99.98달러까지 상승했다. 특히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 150달러를 크게 웃돌며 브렌트·WTI와의 가격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브렌트·WTI와 두바이유 간 가격 차이는 최근 수십 년간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이 두바이 가격에 직접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훨씬 가파르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역사상 유례 없는 수급 위기’라고 평가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상 물류 차질은 현실화되는 모습이 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를 통과해 나오는 유조선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기 중이던 선박들이 흥해, 오만, 미국 등 다른 경로로 우회하면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UAE산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3월 말~4월 초, 나머지는 4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양 실장은 “4월 위기설이 있지만 대체 물량과 비축유를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 중 비축유 방출도 공식화했다. 양 실장은 “민간 원유 재고와 대체 도입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출 시점을 준비 중”이라며 “4월 중에는 비축유를 방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 재고 규모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정보라 공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가스 시장은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양 실장은 “중동·카타르 영향으로 아시아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미국은 셰일가스로 공급이 충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시설

등 공격 여파로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이 급등했지만, 국내 수급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카타르산 가스 비중이 20% 미만이어서 당장 공급 차질은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스 시장이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과 물류 여건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3월 들어 대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0% 감소했으며, 중동 노선 해상 운임은 2월 말 대비 150% 이상 급등했다. 산업부는 중동 리스크가 물류비 상승과 수출 감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실장은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정유사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는 금융·결제·제재 리스크가 커 정유사들이 신중한 입장”이라며 “대체 수입이 더 경제적인지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프타(납사) 공급 부족으로 가동 중단 우려가 나오는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수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 판단이다.

양 실장은 “초기에는 4월 초·중순 생산 차질을 예상했지만, 대체 납사 확보로 중단 시점이 4월 하순~5월로 늦춰지

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 방출, 수출 제한, 수급 조정 등을 통해 석화기업에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특히 나프타 수급 구조와 관련해 국내 사용 납사의 약 55%는 정유사 생산, 45%는 수입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대체 나프타 수입시 추가 발생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전반의 공급망 리스크를 밀착 관리하고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공급망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늘부터 ‘공급망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며 “총 12명 규모로 약 30~40개 핵심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품목의 불안이 과장되면 사재기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장감을 유지하되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응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관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2분기 전기요금 ‘동결’... 하반기 인상 압력

한전, 인하 요인 뚜렷하지만
‘200조 부채’ 재무부담 고려

전력당국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또 다시 묶어두면서 요금 동결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다만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4~6월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

기요금은 12개 분기째 동결됐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역시 모두 직전 분기 수준이 유지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변동을 반영해 ±5원 범위에서 결정되

는데,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된 상태다.

실제 산정 결과만 보면 인하 요인이 뚜렷했다. 최근 3개월 연료비를 반영한 실적연료비는 기준연료비보다 낮아 변동연료비가 마이너스로 계산됐다. 이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투입량까지 반영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kWh당 약 -11.2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제도상 하한(-5원)에 막혀 실제 인하 폭은

제한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동결을 택한 것은 한전의 재무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발전연료비 급등 여파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하루 이지만 1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하까지 단행할 경우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9차 변경) 보상계획 안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02호(2011.11.03.)로 승인 고시 및 제2025-70호(2025.12.12.)로 변경 승인 고시되어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남양읍 문호리 일원	2011.11. ~ 2030.12.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가.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추가 편입 토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및 남양읍 문호리 일원 33필지

* 금번 공고 및 보상지역은 실시계획 변경(9차)에 따른 변경 및 미보상 지역에 한함

나. 토지조서 상세내용은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송산그린시티 홈페이지(<http://songsan.kwater.or.kr>)에 공지합니다.

* 공고된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 3. 24. (화) ~ 4. 9. (목) 09:00 ~ 18:00

나.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 보상부(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송산비봉로 388)
- 화성시청 건설과(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 송산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매봉산길 12)

다. 열람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및 관계인임을 확인받은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라. 이의신청 : 열람결과 대상토지, 물건,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보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대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에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실보상 협의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기준

- 대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2010.08.24.)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협의 양도한 자(신청자 토지 소유 자분 전부 협의 양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대토면적 :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에서 대토보상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급 가능하며, 1인당 1필지를 일반분양가격(상업용지는 감정가격×유사용지 평균낙찰률)으로 공급

* 『대토보상 세부기준』은 손실보상 협의시 별도 안내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 보상협의 → 보상금지급

라. 현재 토지분할 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 분할 전 기존 지번으로 보상계획 공고가 진행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시기

가. 2026년 7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6.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6.04.09.)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는 1개 감정평가법인만 추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추천 동의시 무효처리함

다. 공부지목과 현실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감정평가되며, 임야 등 토지에 자연림이 있는 경우 그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됩니다.

라. 토지 일부가 본 사업에 편입되어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 중,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농지를 점유하고 영농을 영위한 실제 경작자의 경우 영농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을 사업기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보상액,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시 별도 통지드릴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 1) 전화 : 031-369-8320~2
- 2) FAX : 031-369-8309

2026. 03. 24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도시본부 시화도시사업단장